

# ★ 청중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 ★

(출처 : 워싱턴 오페라의 공연 팸플릿)

## ■ 클래식 음악회 관람 예절(에티켓)

### 1. 서곡도 연주의 일부이다.

보통 오페라 시작 전에 서곡이 연주된다.

무대 막은 아직 열리지 않고 오케스트라만 연주되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서곡도 전체 연주의 일부이니 여기서 옆 사람과 나누던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 2. 아이들을 데려오게 된다면 등제를 잘 해야한다.

야단법석인 아이들 때문에 공연이 영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아이들이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을 확실히 통제하지 공연장 내 탁이시설에 잠시 맡겨야 한다. 특히 7세 미만의 아동은 대부분의 대형공연에 입장할 수 없다고 공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자.

### 3. 휴대전화를 끈다.

음악회는 일상과의 단절이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음악에 집중하자. 음악회에서 '매너모드'는 진동이 아니라 'OFF'다. 일상생활에서는 회의 시간 같은 상황에서 진동모드로 전환하기만 해도 매너있는 행동이지만, 절대적 침묵이 요구되는 공연장에서는 진동도 소음이다. 휴대폰의 진동 소리도 음악회에 서는 과정을 중 방해 톱크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린다. 중간 휴식 때 어디론가 전화 걸었다가 전원을 끄지 않고 다시 입장할 때도 있으니 인터미션 때도 휴대폰 전원을 끄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연락이 왔다고해서 어두컴컴한 공연장에서 휴대폰을 키는 것은 피해야 되는 행위이다. 공연 도중 통들이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깜빡깜빡 빛을 노출하는 인폐 관람객을 의미하는 '공연장 반딧불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겼다. 공연 중에 의도적으로 조명을 어둡게 연출하는 대목에서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그 불빛 때문에 본위기가 깨지게 된다. 벨소리나 진동소리는 피아니시모의 로맨틱한 감흥을 싹 가시게 만들어 버린다.

### 4. 공연 중에 임의로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생리적으로 불가피하게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몸이 불편해 도저히 견디다가 힘들 때, 계속 기침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때, 화재나 지진, 건물 붕괴 등의 비상 사태가 났을 때가 아니면 음악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의다. 더 좋은 자리가 비어 있다고 연주 직전에 자리를 옮기지 말자. 좌석 주인이 늦게 도착해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이미 자기 자리는 다른 사람이 옮겨 앉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양체족이 많으면 음악회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 5. 공연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공연장은 일베된 공간이기 때문에 음식물은 먹지 않는 것이 매너이다. 물론 정도만 반입이 가능하고 take-out 커피도 입구에 맡기고 들어가도록 한다. 소음처럼 음식 냄새도 공연 관람에 방해되는 요소이니 조심하자.

### 6. 떠들거나 흥얼거리지 말자.

귓속말도 크게 들린다. 옆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시 참자. 또한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멜로디가 나와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면 안된다.

### 7. 공연 도중 가방에서 소지품을 꺼내지 않는다.

공연 중간에 가방을 뒤적거리는 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관람객 모두가 공연 중인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지갑이나 가방, 쇼핑백을 뒤적여 한다면 휴식시간을 이용하자. 공연 중에 부스럭 대거나 지퍼 여닫는 소리는 내지 말자.

※공연장에 가져올 수 없는 물품  
카메라, 녹음기, 음식물(음료 포함), 꽃, 화환, 소리가 많이 나는 비닐제품 등은 공연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반입금지

## 8. 공연이 끝난 후 퇴장한다.

공연은 연주가 시작된 후부터 앵콜곡이 끝날 때까지 공연이라고 간주한다. 간혹 불비가 전에 미리 나가겠다고 앵콜곡이 끝나기도 전에 퇴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공연 중에 나가는 일은 상간다.

## 9. 남이 나에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야 한다.

청중이 단지 공연을 감상하는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다. 연주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연주 환경의 일부이다. 청중은 용기를 북돋워줘서 더 좋은 연주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상기하자. 그 좋은 연주는 결국 에티켓을 지킨 청중들의 몫이다. 결국 에티켓은 내가 잘 감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 10. 미리 공연정보를 수집한다.

지휘자의 프로필이나 연주자에 대한 정보, 연주 프로그램(곡목)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대표곡을 들어보는 등 미리 기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공연을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 연극이나 영화에서도 그렇게하면 동행자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즐거움도 배가 된다.

## 11. 지나친 향수를 자제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향수 등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독한 향수를 뿌리는 대신 깨끗이 목욕하고 비교적 은은한 향수를 뿌린다.

## 12. 복장은 깔끔하게 갖추도록 한다.

음악회 관장은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일이니 마음껏 멋을 부려도 좋다. 관객 대부분이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는 편이다. 하지만 옷에 신경이 쓰여서 음악 감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거추장스럽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간편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예의에 맞는 옷차림이 적당하다.

## 13. 지각하지 않는다.

공연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20~30분 전에는 도착한다. 회장실도 공연이 시작하기 전 미리 다녀오고, 공연장 출입은 인터미션(쉬는시간)때에만 한다. 공연이 끝나고 난 후의 퇴장 시간은 객석 등이 켜질 때 부터다.

### ※ 지각해 버렸다면..?(지각 관객의 에티켓)

공연 중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멋대로 객석에 들어가서 자리를 찾는 것은 절대 금물! 스태프에게 낮은 것을 알리고 안내에 따른다. 자리는 주변 관객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허리를 굽혀서 살짝 앉는다.

- ① 도우미(하우스 어텐던트 또는 어서)에게 문 열어 달라고 떠쓰지 않는다.
- ② 한 곡이 끝난 뒤나 무대 전환 시 입장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서 기다린다.
- ③ 입장 후에는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입구 쪽에서 있거나 뒤쪽 빈자리에 앉는다.
- ④ 한 곡이 완전히 끝나고 연주자가 잠시 퇴장했을 때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 ⑤ 출입문 옆에 있는 좌석 배치도를 미리 봐 두었다가 헤매지 않고 단번에 자리로 직행한다.

## 14. 앞 사람의 좌석을 발로 차지 않는다.

한창 공연을 보고 있는데 내 의자를 뒤흠랑이 발로 찬다면 어떨까? 화들짝 놀라 공연에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고, 뒷사람의 배려없는 행동에 기분도 상하게 된다. 공연장에 입장료를 내고 공연을 즐기는 그 순간을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신발을 벗고 앞에 있는 의자 등받이나 팔걸이에 발을 올리는 행동도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절대 금물!

## 15. 녹음,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다.

좋은 것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법이지만, 공연장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진촬영, 녹화, 녹음 등은 저작권문제, 관람 방해 등의 이유로 일체 금하고 있다. 사진 찍는 행위와 소리는 공연자에게 방해가 되고 주변의 관객들에게 피해가 된다. 문외생할 인증은 티켓을 찍거나, 로비의 포토존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촬영은 커튼콜 때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하도록 한다.



## ★ 박수의 타이밍 ★

### ◆ 일반적인 박수의 시점

- 오케스트라 단원이 입·퇴장할 때
- 악장이 입장할 때
- 지휘자가 입장할 때, 무대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입장 할 때
- 협연자가 입·퇴장할 때
- 연주가 끝난 후 지휘자가 곡 중 독주자를 일으켜 세울 때
- 지휘자가 단원 전체를 일으켜 세울 때
- 앙코르 곡 연주가 끝났을 때
- 지휘자가 객석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

### ◆ 기립박수의 타이밍

- 공연에 정말 감동 받았을 경우
- 오케스트라 연주 시 기립박수는 곡이 끝날 때가 아니라 전체 공연이 끝난 후

### ◆ 연주자들의 박수 방법

박수갈채가 청중의 전유물은 아니다.

- 협주곡이 끝나고 객석에서 협연자에게 박수를 보낼 때 지휘자는 물론 단원들도 함께 박수를 치기도 한다.
- 바이올린 연주자들처럼 양손에 악기가 있는 경우 활로 보면대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발을 굴러 박수를 대신한다.
  - 관악기 연주자의 경우엔 악기를 들고 있는 손등을 다른 한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발을 구르며 박수를 대신한다.
  - 타악기 또는 악기를 바닥에 세울 수 있는 연주자는 양손을 이용한다.
  - 지휘자는 지휘봉을 보면대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손뼉을 치거나 지휘봉으로 보면대를 두드린다.

### ◆ 음악장르에 따른 박수시점

<다악장 형식의 음악>

※ 악장이란?

여러 개의 독립된 소곡(小曲)들이 모여서 큰 악곡이 되는 경우 하나하나의 소곡을 악장(樂章)이라 함(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등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음악
- 모든 악장이 끝나고 음악적 여운이 사라진 후 박수 칠
-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치지 않을
- 한 곡이 끝나 연주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단악장 형식의 음악>

- 한 개 악장의 소품일 경우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 칠
- 즉흥곡, 환상곡, 전주곡, 연습곡, 발라드, 광시곡, 서곡, 교향시 등

<오페라, 뮤지컬>

- 막이 내린 후(1막, 2막, 3막 등)
- 극 중 아리아(Aria)나 이중창이 끝났을 때는 박수를 치거나 '브라고'라고 격려

## ★ 브라보의 종류 ★

◆ 브라보는 이탈리아어로 '좋다, 잘했다'라는 의미로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 브라보(Bravo) : ( ) 솔로에게 환호를 보낼 때
- 브라바(Brava) : ( ) 솔로에게 환호를 보낼 때
- ( ) : 두명 이상의 여성 연주자에게 환호를 보낼 때
- ( ) : (복수형) : 혼성, 단체의 연주에 환호할 때

◆ 앙코르(Encore) : 더 듣고 싶을 때

- 프랑스어로 '다시 한 번 더' 라는 의미로 주로 영어권에서 사용하며, 프랑스에서는 '비스(bis:두번)'라고도 소리친다.
- 연주자는 청중이 '브라보'라고 소리쳐도 '앙코르'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인다.
- 앙코르 연주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이나 다른 곡을 다시 한 번 연주한다.

## ★ 무대 감상의 흐름 ★

- ① **예약** : 친구나 동행자 티켓도 예약하게 되었다면, 어느 자리가 좋은지 희망 위치를 물어본다. 무대 바로 앞쪽 객석인지, 2층이나 3층 자리인지에 따라 보는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공연 전** : 공연 직전에 부라부라 뛰어 들어가는 것은 꿀볼건이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로비 분위기를 즐기자. 프로그램 관련상품을 사거나 보면서 천천히 즐기는 것이 멋지다. 화장실도 공연 전에 가두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 ③ **공연 중** : 들어올 때 받은 프로그램을 바스락거리거나 콘소리가 나게 넘겨 봐서는 안된다. 공연 중에는 절대로 일어서지 않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제벨리 나간다.
- ④ **공연 후** : 공연 후 여운을 길게 느끼고 싶다면 가까운 곳의 카페나 식당에서 관람한 연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 ★ 음악회 관람 예절 나는 지키고 있나요?

◆ 연주회 감상에 지켜야 할 예절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퀴즈로 풀어보자.

1. 연주회에 가기 전에는?

- ① 연주될 곡의 제목과 작곡자를 미리 알아본다.
- ② 연주가 끝릴 수 있으니 미리 꼭 자른다.

2. 연주회장 도착은?

- ① 늦어도 연주 10분전에는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읽어본다.
- ② 연주시작 시간에 꼭 맞춰 와서 허겁지겁 자리에 앉아 주변 사람의 눈총을 받는다.

3. 연주 중간에는?

- ① 연주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감상한다.
- ② 연주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간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는다.

4. 핸드폰이나 카메라는?

- ① 연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핸드폰은 끄고 사진은 찍지 않는다.
- ② 내가 연주회장 에 있음을 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알리고 인증샷을 찍어 보낸다.

5. 악곡이 끝나면?

- ① 박수로 연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간단한 감상을 메모한다.
- ② 박수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 옆 친구와 참았던 수다를 떠난다.

6. 연주회가 끝나면?

- ① 연주회를 회상해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여 의미 있는 연주회가 되도록 한다.
- ② 입장료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 ★ 내가 만드는 음악회 관람 에티켓

오늘 우리는 공연을 관람하려 합니다. 청중으로서 나는 어떠한 에티켓을 준수하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공연관람 에티켓 5가지를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바탕으로 서술해봅시다.

첫째

그 이유는:

둘째.

그 이유는:

셋째

그 이유는:

넷째

그 이유는:

다섯째

그 이유는:





# 저작권 알기

2학년 \_\_\_반 \_\_\_번 이름 \_\_\_\_\_

저작인격권 : \_\_\_\_\_  
\_\_\_\_\_

저작재산권 : \_\_\_\_\_  
\_\_\_\_\_

## 저작권의 보호기간

- ①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 ②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_\_\_\_\_
- ③ 법인등이 저작자인 업무상 저작물 : \_\_\_\_\_
- ④ 영상저작물 : \_\_\_\_\_



### 저작자표시(BY)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은 가능하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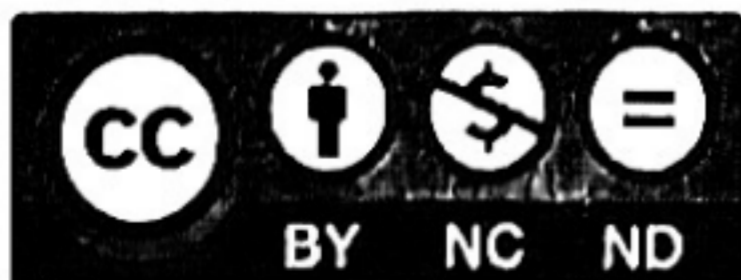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